Indonesia
Bali
인도네시아 발리섬

글 구자광 / 사진 구자광, A.B. LEE



발리섬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최고이다. 발리섬의 다이빙 사이트는 섬을 중심으로 남동지역과 북서지역으로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발리의 남동지역으로는 사누르(Sanur), 파당바이(Padang Bai), 칸디다사(Candi Dasa), 투람벤(Tulamben), 아메드(Amed, 또는 세메룩), 페니다섬(Penida) 등에 다이빙 사이트가 분포되어 있다.

우선 발리섬 남동지역의 다이빙은 첫째로 꼽는 툴람벤(Tulamben)에 있는 USAT Liberty Wreck(리버티렉, 난파선 포인트)이다. 이곳은 발리에서 가장 인기있는 다이빙 장소중에 하나이며, 접근이 쉽고 풍부한 해양생물로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아메드(Amed)는 연산호로 덮인 웅장한 절벽이 유명하고, 세라야 시크릿(Seraya Secrets)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누사 렘봉안(Nusa Lembongan)과 누사 페니다(Nusa Penida)섬 주변에는 조류 다이빙과 잘 발달된 산호, 멋진 바다 해파리, 만타레이(Manta Ray), 몰라몰라(MolaMola) 등을 볼 수 있다.

발리의 북서지역은 멘장안섬(Menjangan), 페무테란(Pemuteran), 로비나(Lovina) 등에 분포되어 있다. 멘장안섬(Menjangan)에는 장엄한 슬로프와 월다이빙이 가능하고 피그미 해마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Secret Bay, PJ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희귀하고 신비로운 해양생물을 볼 기회를 제공한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하늘에서 본 덴파사르 지역

1 신화의 섬, 발리(Bali)

신화의 섬, 발리섬(Bali)은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군도(17,508개) 중에 자바섬(Java)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크리스트어로 '제물의 섬'이란 뜻으로 섬 자체가 신(神)의 선물이라고 할 만큼 이색적인 생활양식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더구나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지구상의 마지막 낙원'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양 최대의 관광지로 호평을 받고 있다.

발리섬은 대부분 지역이 자바 섬 중부산맥의 연장 부분인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봉은 해발 3,142m 높이의 아궁산(Gunung Agung) 또는 발리봉이라고 부르는 산이다. 발리섬의 크기는 총 면적은 5,633㎢이고, 폭은 150km로 제주도보다 3배 정도 크다. 이 섬의 총 인구는 약 3백만 명이며,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인데 비해 발리는 주민의 9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다. 따라서 발리는 인도네시아 중에 매우 다른 문화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발리섬은 사바나 기후에 속하며, 계절은 북서계절풍이 부는 우기(10~3월)와 남동계절풍이 부는 건기(4~9월)로 뚜렷하게 나뉜다. 우기에는 하루에 2~3시간 스콜이 내린다. 심할 때에는 30cm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도 있다. 연중 기온의 변화는 거의 없고, 연간 최저평균기온은 약 24℃, 최고평균기온은 약 31℃, 또, 평균 습도는 약 78%로 덥고 습도도 높지만, 체감기온은 바다 바람에 의해 훨씬 부드럽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연중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기 중 한낮의 최고기온이 34도 이상을 웃도는 뜨거운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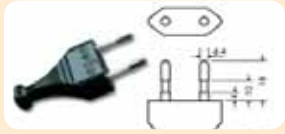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정보

시차

발리섬의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리다.

전기

100v용 전기콘센트를 이용하기 위한 11자형 플러그가 필요하다.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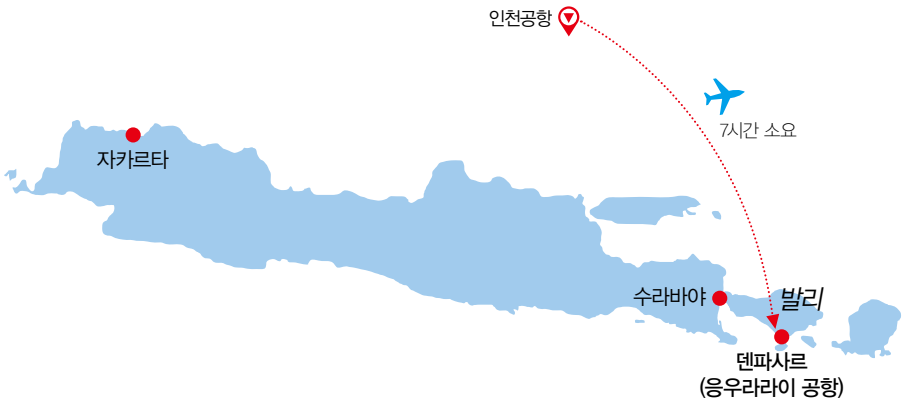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북마리아나제도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입국할 때 미국비자가 필요 없어도 가능한 비자 면제 지역이다. 미국령 괌과 사이판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로 늘어나고 H-2B 취업 비자를 무제한으로 발급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 또는 미국령에 입국하려면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서 미국입국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비자가 면제된다.

발리에서의 주의사항

- 발리인은 머리는 영혼을 담는 곳이라고 생각하므로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 왼손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므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나 악수를 할 때는 오른손만 사용해야 한다.
- 대화중에 허리에 손을 대지 말자. 이곳 사람들은 화난 것으로 받아들인다.
- 발리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에 돼지고기를 권하지 말자. 종교적 특성상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 발리인들은 과한 음주를 싫어한다.

발리섬으로 가는 방법

인천에서 발리까지 대한항공 직항편이 취항하여 훨씬 편하고 경제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발리의 직항노선인 대한항공의 경우 약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Mandara 고속도로 톨게이트

2 발리섬의 다이빙 환경

발리섬의 다이빙 사이트는 섬을 중심으로 남동지역과 북서지역으로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발리의 남동지역으로는 사누르(Sanur), 파당바이(Padang Bai), 칸디다사(Candi Dasa), 투람벤(Tulamben), 아메드(Amed, 또는 세메룩), 페니다섬(Penida) 등에 다이빙 사이트가 분포되어 있다.

발리섬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최고이다. 우선 발리섬 다이빙은 첫째로 꼽는 툴람벤(Tulamben)에 있는 USAT Liberty Wreck(리버티렉, 난파선 포인트)이다. 이곳은 발리에서 가장 인기있는 다이빙 장소 중에 하나이며, 접근이 쉽고 풍부한 해양생물로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아메드(Amed)는 연산호로 덮인 웅장한 절벽이 유명하고, 세라야 시크릿(Seraya Secrets)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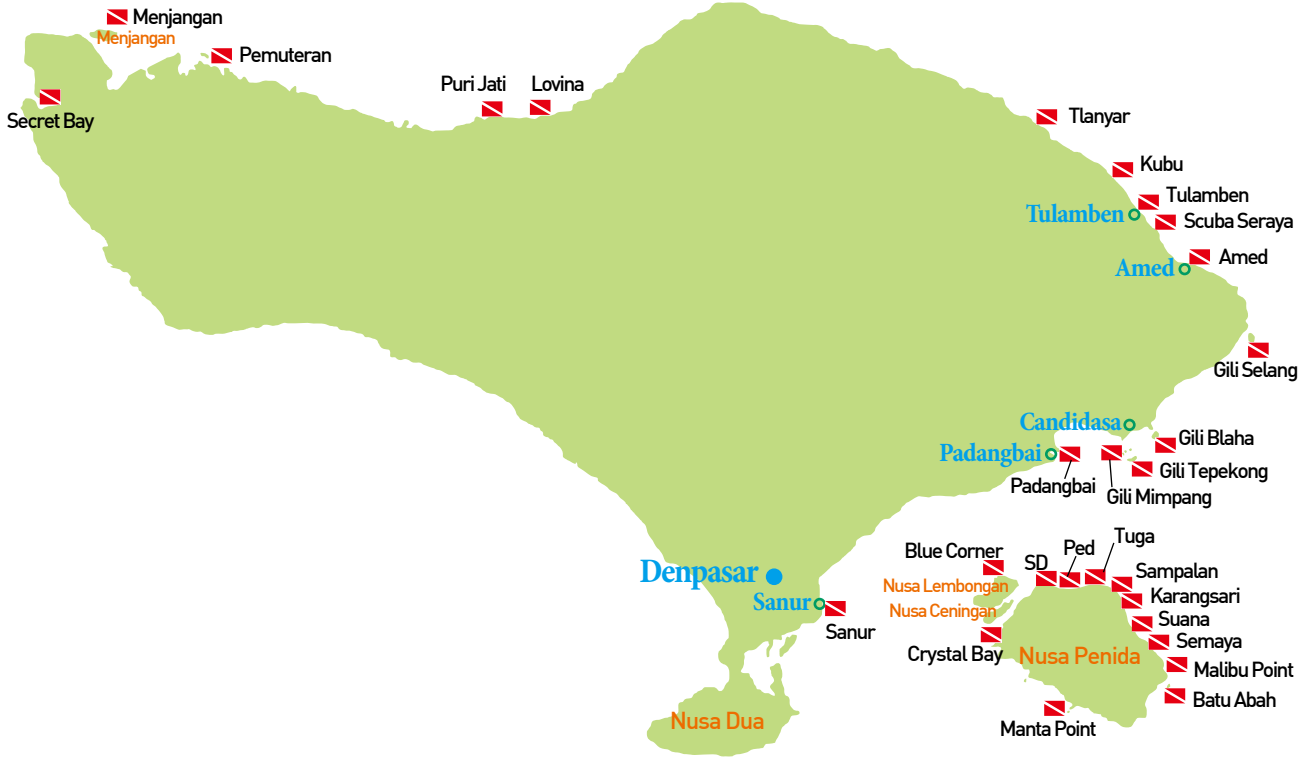
누사 렘봉간(Nusa Lembongan)과 누사 페니다(Nusa Penida)섬 주변에는 조류 다이빙과 잘 발달된 산호, 멋진 바다 해파리, 만타레이(Manta Ray), 몰라몰라(MolaMola)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의 경사면은 깨끗한 산호초로 덮여 있다.

발리의 북서지역은 멘장안섬(Menjangan), 페무테란(Pemuteran), 로비나(Lovina) 등에 분포되어 있다.

멘장안섬(Menjangan)에는 장엄한 슬로프와 월다이빙이 가능하고 피그미해마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Secret Bay, PJ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희귀하고 신비로운 해양생물을 볼 기회를 제공한다.



렘봉안섬의 다이빙 보트



다이빙 시즌 및 기후

날씨만 보면 건기인 4~10월 사이가 발리를 여행하기 가장 좋다. 11~3월은 우기인데 이 기간은 매우 습하며, 대부분 구름이 끼어있고, 비도 많이 내린다. 하지만 여행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발리섬의 다이빙 시즌은 연중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비교적 좋은 다이빙 시즌은 6~9월인데 베스트 시즌은 8~9월이다. 또한 몰라몰라를 볼 확률이 높은 시기는 8~10월이다. 발리섬에서 다이빙을 위해서 웨트슈트는 3~5mm 추천한다.

다이빙 방법

발리섬의 다이빙 방법은 리조트에서 숙식과 다이빙을 하는 방법과 호텔에서 묵으면서 인근 다이빙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발리섬에는 수도격인 덴파사르(Denpasar) 국제공항 근처에 다이빙샵은 물론 호텔과 상가들이 몰려있다. 이곳에 주로 다이버를 비롯한 일반 관광객이 머물게 된다. 그러나 다이버들에게는 많은 샵 중에서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는 용이하나, 이 지역에서 주요 다이빙 사이트까지의 이동거리가 꽤 멀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곳도 자동차로 최소한 편도 2시간 정도 걸리고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최고의 사이트가 산재돼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리조트에서 머물며 다이빙도 즐기고 조용한 최상급 숙박시설의 서비스를 만끽하며 지내다오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 발리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는 남동 지역에 몰려있다. 이 지역의 중심인 파당바이(Padang Bai)나 칸디다사(Candi Dasa) 지역에 머무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리조트 바로 앞에 있는 Tepekong 섬과 Gili Mimpang Reef 포인트는 대형 물고기와 상어 서식지로 유명하다. 우선 발리하면 첫째로 꼽는 Liberty Wreck(난파선 포인트)이 30분 거리에 있고 그리고 개복치(MolaMola) 출현 지역이자 조류다이빙으로 유명한 페니다섬(Penida)과 렘봉안섬(Lembongan)까지도 쉽게 갈 수 있다.

만약 발리섬의 북서지역에 위치한 맨장안섬(Menjangan)이나 주변 지역의 다이빙을 위해서는 숙소나 다이빙샵을 북서쪽에 있는 곳에 정하는 것이 좋다.

발리의 다이빙 센터

사파리

- Atlantis Bali Diving http://www.atlantis-bali-diving.com/

남동지역의 다이빙샵

- BINTANG DIVERS http://www.bintangdivers.com/
- Blue Season Bali http://www.baliocean.com/en/
- Bali Divng http://balidiving.com/
- Bali International Diving Professionals http://www.bidp-balidiving.com/

파당바이

- OK Divers Resort & SPA http://www.okdiversbali.com/



북서지역의 다이빙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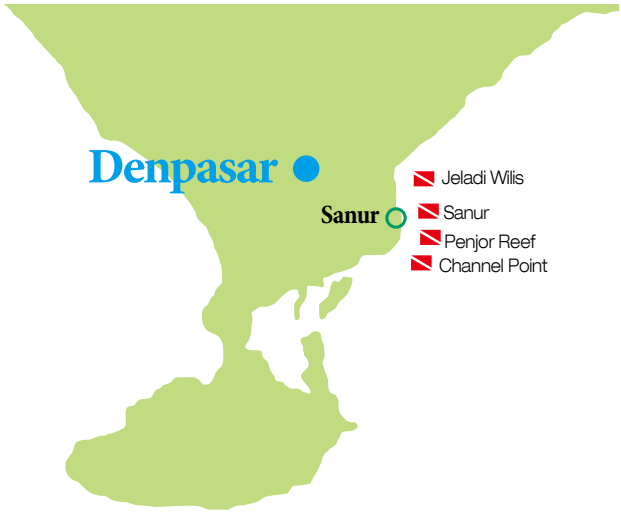
- Blue Season Bali http://www.menjangan-diving.com/
- Menjangan Island Diving & Snorkeling Spot http://www.pemuteranwestbali.com/
- MIMPI RESORT MENJANGAN https://www.mimpi.com/menjangan/



사누르 항구(렘봉안섬으로 가는 보트 정박)

3 발리섬의 다이빙 사이트

발리의 남동지역 사누르(Sanur)



사누르 앞의 산호초에는 4개의 다이빙 사이트가 있는데, 이들은 채널 포인트(Channel Point), 사누르 베이(Sanur Bay), 펜조르 리프(Penjor Reef) 및 젤라디 빌리스(Jeladi Wilis)가 있다. 사누르 지역의 다이빙에서 가장 큰 특징은 큰 모래로 된 해변이 있고, 멋진 다이빙 사이트가 해안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다. 그래서 모든 다이빙에서 볼 수 있는 갯민숭달팽이, 문어, 너스샤크와 가오리 등의 큰 생물들을 볼 수 있다.

젤라디 윌리스(Jeladi Wilis) · Jaya de Willis

이곳은 간단하고 조용하다. 20m까지 슬로프로 되어 있고, Sting Ray, Octopus, scorpion fish, Nudibranches 등을 볼 수 있다.

사누르 베이(Sanur Bay), 펜조르 리프(Penjor Reef), 채널 포인트(Channel Point)

Sanur Bay는 다이빙 교육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산호초 슬로프가 넓은 모래밭까지 이어져 있다. Penjor Reef는 건강한 산호와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접사 피사체가 풍부하다. Channel poin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이브 사이트는 채널에 있다. 산호초는 커다랗고 모래가 많은 해저에 이르는 채널 가장자리를 따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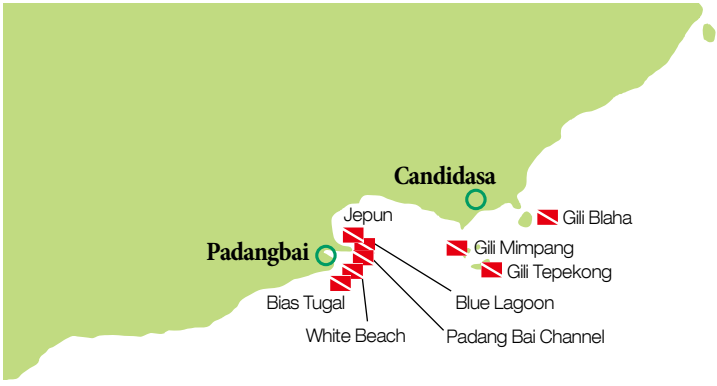






발리의 남동지역

파당바이(Padang Bai)&캔디다사(Candi dasa)







파당바이(Padang bai)

파당바이는 작고 바쁜 어촌 마을이다. 그 모래사장은 다이버들에게 편리한 곳이다. Padangbai에서의 다이빙은 많은 매크로로 가득 찬 건강한 산호초가 있는 다양한 다이빙 사이트를 제공한다. 가장 인기있는 다이빙 사이트는 Jepun, Drop Off, Blue Lagoon, Silayukti Point, Ferry Channel, Bias Tugal, Jetty 또는 Secret Jepun이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은 Oriental sweetlips, Moray eels, Napoleon wrasses, Trevalies, Jackfish, Tunas, Crocodilefish, Frogfish, Cuttlefish, Sharks, Turtles 등이다. Ornate and Robust ghost pipefish, Leaf scorpion-fish, Pygmy sea-horses, Nudibranche, Rhinopias, Zebra crabs 등의 작은 생물들도 볼 수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White-tip and Black-tip reef sharks, Nurse and Wobbegong sharks 등을 볼 기회가 있다.

떼페콩섬(Tepekong Is.)

칸디다사(Candidasa) 해변으로부터 보트로 십여 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바위섬으로 전체적으로 수심이 완만하며 최대 수심도 40m 정도이다. 섬으로 시작하여 계단식으로 절벽이 이루어져 있고 수심 30m에서부터는 모래밭이 나타난다. 이곳에는 커다란 벽, 협곡, 작은 동굴, 멋진 해류와 멋진 경산호, 연산호가 혼재되어 있다. 이곳 다이빙에서 White tip reef sharks, Eagle rays, Barracudas, Napoleon wrasses, Trevalies, Jackfish, Tunas 등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몰라몰라(MolaMola)를 볼 수도 있다.

Gili Mimpang(Batu Tiga라고도 함)

Gili Mimpang은 큰 바위 3개와 작은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Padang Bai와 Candidasa 사이의 Amuk Bay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지형은 단단하고 부드러운 산호초와 큰 부채산호들로 덮인 큰 바위로 가득하다. 이곳에는 Blue spotted rays, Napoleon wrasse, Moray eels, Trevalies, Jackfish, Tunas, White tip reef sharks, Mackerels 등을 볼 수 있고, 5월에서 11월에 MolaMola가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비하 슬로프(Biaha Slope)

길리비아(Gili Biaha)는 바위가 많은 섬으로 테펙콩섬(Tepekong)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가파른 드롭오프 리프이다. 울퉁불퉁하고 계단식 암초 벽의 끝은 블루홀로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블루홀 벽의 돌출부 아래에서 리프상어가 볼 확률이 높으며, 내부의 크랙 사이에 많은 바닷가재가 살고 있다.

발리의 남동지역

페니다섬(Penida Is.)



렘봉안섬에 있는 다이빙 리조트

- World Diving Lembongan
  - http://www.world-diving.com/
- MolaMola House Lembongan
  - http://molamolalembongan.com/

페니다섬은 발리 남부의 누사두아(Nusa Dua)나 사누르(Sanur)에서 출발하면 34km의 거리이고, 파당바이(Padangbai)에서 출발하면 17km의 거리에 있다. 페니다섬은 해변을 따라서 전형적인 어촌이 자리 잡고 있는 섬으로 약 45,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름다운 해변이 길게 이어져 있고, 리조트 등의 관광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일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이곳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마을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을 보고 돌아간다. 페니다섬(Nusa Penida)은 렘봉안섬(Lembongan)과 세닝안섬(Ceningan) 두 개의 부속 섬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섬들은 유인도이며 렘봉안섬과 세닝안섬은 썰물 때 수위가 낮아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으며, 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두 섬 사이의 거리는 수백 m이다. 렘봉안섬의 크기는 길이가 4Km 정도이다.

페니다섬의 다이빙은 주로 조류 다이빙의 형태이다. 페니다섬의 다이빙은 힘들고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가 세차며 매우 불규칙한데다가 상승조류까지 있어 예측을 불허한다. 또한 상승조류를 만나면 수온이 매우 차갑다. 상승조류가 없다 해도 수온약층이 수시로 나타난다. 특히 페니다섬과 세닝안섬 사이의 해협이 더 난조를 보인다. 그런데도 다이빙 사이트는 이 해협에 더 많이 몰려있다. 다이빙 진행 방향과 조류의 방향이 일치할 경우는 최고의 조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조류가 가장 심하고 불규칙한 곳은 페니다섬의 오른쪽에 붙어있는 세닝안섬과 렘봉안섬 사이이다. 이곳은 수심 50m까지는 계단식의 완만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수심은 600m까지 이어진다.

페니다섬의 물속 지형은 해변 쪽에 8~12m 수심권에 평평한 산호밭이 있고 대형 사슴뿔(Stag horn)산호 필드가 압권이다. 그 밖으로 30m 수심까지 가파르다가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600m 수심까지 이어진다. 페니다섬의 유명한 볼거리는 회유성 어족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타레이, 참치, 잭피쉬뿐만 아니라 개복치(Mola-Mola 또는 Sun fish)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월리스 라인(Wallace Line 또는 Wallace's Line)

월리스 라인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사이를 가르는 가상의 선이다. 선의 서쪽에서는 아시아에 서식하는 동물만 발견되며, 동쪽에서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동식물이 발견되는 등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대표적인 인물은 앨프리드 월리스(Alfred Wallace)이며, 명칭도 이를 기려 붙여진 것이다.



SD 포인트(Sekolah Dasal Point)
페드 포인트(Ped Point)
삼파란 포인트(Sampalan Point)

세 포인트는 모두 연결된 구간이며 수중의 특성도 모두 비슷하다. 해변도 모두 낮은 육지로 되어 있고 전체가 거의 일직선 해변이다. 한 번의 다이빙으로는 이곳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길게 늘어선 사이트로 다이빙 시작하는 곳의 지명을 붙여서 나누어 놓은 것이다. SD 포인트의 시작하는 곳에 아주 작은 초등학교가 있다. SD(Sekolah Dasal)도 초등학교 이름의 머리글자이며 Ped와 Sampalan도 섬의 지명이다. 수중의 지형은 10m 이내는 평평한 산호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으로는 완만한 슬로프로 이어져 있다. 이 슬로프는 지역에 따라 작은 직벽과 절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슬로프는 수심 40~50m에서 모래밭과 만난다. 슬로프를 따라 잘 발달된 연산호와 경산호들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부채산호와 항아리산호들이 어우러져 멋진 광경을 연출한다. 수심 30m 정도의 모래밭에서는 가오리와 상어 등이 자주 목격된다.

말리브 포인트(Malibu Point)

Penida섬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이곳은 일반적으로 조금 나은 가시성을 제외하고는 물밑 상황은 북쪽 해안과 아주 비슷하다. 이곳의 조류는 북쪽보다 훨씬 까다롭다.

블루코너(Blue Corner)

블루코너(Blue Corner)는 수심 약 24m의 지점에 테라스가 있는 슬로프이다. 이글레이, 스폿티드스팅레이, 튜나, 상어,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상어, Trevalies, Barracudas, MorayEel 등과 Manta Ray를 볼 수 있고, 드물게는 몰라몰라(Molamola)를 볼 수도 있다.

토야파케(Toyapakeh)

토야파케(Toyapakeh)는 세닝안 해협의 강한 물살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다이빙 사이트로 페니다섬 최고의 다이빙 명소 중 하나이며 Padangbai에서 보트로 20분 거리에 있다. 약 10m 수심에서 조류와 함께 드리프트 다이빙을 하면 많은 Sweetlips가 있는 보미(Bommies)가 나타나고 가끔은 나폴레옹피쉬와 바다거북을 볼 수 있고, Jackfish와 Batfish를 포함한 물고기 무리가 나타난다. 경사면에서 더 깊숙한 곳에서는 몰라몰라(Molamola)를 포함한 더 큰 원양 어류를 볼 기회가 있다. 이곳의 조류는 종종 북동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쉽고 쾌적한 조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얕은 물과 깊은 물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깊이를 달리할 때 다이빙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곳에서는 리본일, 오랑우탄게 및 누디브랜치와 같은 작은 생물 등도 볼 수 있다.






크리스털 베이(Crystal Bay)

크리스털 베이는 발리 대표적인 다이빙 사이트 중 하나로 렘봉안섬과 페니다섬 사이를 흐르는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배들이 닻을 내려 머무는 곳이다. 안쪽은 모래지형이나 조금만 돌아 나오면 깊은 수심으로 이어지는 직벽으로 연결되며 얕은 수심의 산호와 바슬렛피쉬 무리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크리스털 베이 앞에 있는 작은 섬 뒤로는 하늘로 열려 있는 수중 동굴이 있어서 동굴 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지만 파도와 조류의 상황에 따라 동굴로 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몰라몰라 클리닝 스테이션(Molamola Cleaning Station)이다.

몰라몰라 클리닝 스테이션(Molamola Cleaning Station)

크리스털 베이는 거대한 몰라몰라를 관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소 중 하나인 명성 높은 다이빙 사이트이다. 6~10월 사이에 이곳에서 몰라몰라를 볼 확률이 가장 크다. 여름이면 심해의 찬물을 타고 올라오는 곳으로 몰라몰라를 볼 수 있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생물이라 따라가면 도망가니 유의해야 한다. 몰라몰라가 나오는 여름 시즌 동안은 수온이 낮을 때는 20~22℃로 최소 5mm 웻트슈트가 필요하다.

몰라몰라(Mola Mola)

몰라몰라(Mola Mola)는 라틴어 이름이며, 우리말로는 '개복치'라고 한다. 이는 '맷돌'이라는 뜻으로, 둥글고 납작한 물고기의 모습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개복치는 경골어류 중에서는 몸집과 뼈대가 가장 큰 물고기이다. 기록으로는 몸무게가 2.2톤 이상, 몸길이는 3.3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는 신비한 물고기로 생김새가 무척 특이하다. 몸은 크기가 매우 크고 납작하고 넓으며 배지느러미가 없고 눈과 아가미가 작으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매우 크고 특이하게 생겼다. 입은 새의 부리 모양으로 매우 단단하다.

또한 알을 가장 많이 낳는 어류이기도 한데 한 번에 3억 개가 넘는 알을 낳는다. 그러나 생존율은 거의 없어 이 3억 개가 넘는 알들 중에 성체가 되는 개체는 1~2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치어는 외관상으로 작은 복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성어와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큰 몸집에 비해 성격은 순하고 둔하기까지 한다. 따뜻한 바다에 사는 몰라몰라는 바다 깊이 중간쯤에서 헤엄쳐 다니다가 날씨가 맑고 파도가 없는 날이면 바다 위로 올라와 긴 등지느러미를 물 위로 내놓고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 이 때문에 상어로 착각하기도 한다. 또는 옆으로 드러누워 둥둥 떠서 햇볕을 쬐며 일광욕을 즐기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 이런 습성 때문에 'Sun Fish'라는 영어 이름이 붙었다. 또 움직임이 재빠르지 못해 입으로 흘러들어오는 작은 물고기들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등을 먹고 사는데, 먹이로 해파리를 제일 좋아한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영양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





만타 포인트(Manta Point)

만타 포인트는 페니다섬 남서쪽에 위치한 다이빙 포인트로 파도가 높은 겨울 시즌에는 다이빙을 할 수 없는 날이 많다. 바닥 수심이 약 18m 정도이고 조류가 세고 항시 서지가 있어 모랫바닥에 물결무늬를 만들어 놓았고, 그 골짜기마다 스팅레이 무리들이 보인다. 섬 왼쪽 코너 안쪽으로 수심 약 5m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곳이 만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Manta-Ray Cleaning Station)으로 이곳에서 만타가 청소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만타레이 클리닝 스테이션(Manta-Ray Cleaning Station)

클리닝 스테이션은 클리너 피쉬(Cleaner Fish)들이 군락을 지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만타레이를 포함하여 많은 생물들이 기생충 및 해로운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장소이다. 피딩 스테이션과는 다르게, 매우 느린 움직임을 보이며 입과 머리뿔은 굳게 닫혀 있다.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은 묘한 판타지 세상에 온 것 같다. 이런 모습은 만타레이를 자세히 관찰하기 가장 좋다.

대형 어류의 기생충 제거를 하는 클리너 피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짜 클리너 피쉬(False Cleaner Fish)가 있다. 목적이 다른 가짜 클리너 피쉬의 생김새는 진짜 클리너너 피쉬와 비슷하지만, 만타레이의 살점을 뜯기 때문에 고통으로 인해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만타레이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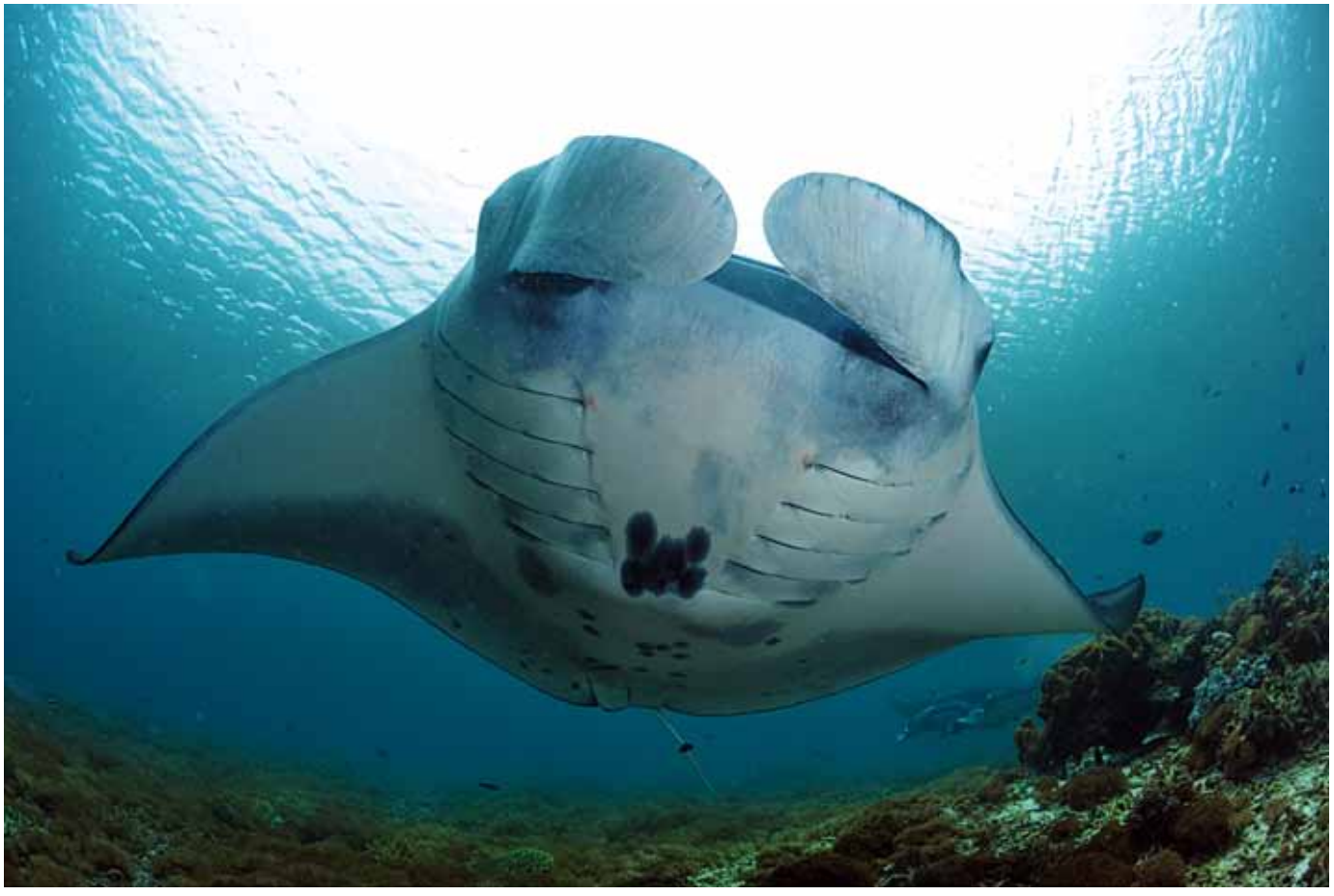
만타레이(Manta Ray, 대왕쥐가오리)

영어 명칭은 '자이언트 만타레이(Giant manta ray)' 또는 '자이언트 오세닉 만타레이(Giant oceanic manta ray)'이며, 여기서 '만타(Manta)'란 단어는 스페인어로 모포 양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왕쥐가오리의 신체에 양탄자 같이 넓은 가슴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서 붙여진 것이다.

만타레이는 가오리류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종이다. 평균 날개 너비는 3~4.5m, 평균 몸무게는 약 1톤 정도 나가며, 최대 크기의 개체는 날개 너비가 7m, 몸무게가 2톤씩 나간다. 입은 뻥 뚫려 있는 형태로, 매우 작은 이빨이 달려 있다. 입의 양쪽 끝에는 기다란 머리지느러미가 달려 있는데 대왕쥐가오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먹이를 입 주위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다란 꼬리에는 다른 가오리에는 있는 독가시가 없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열대 지역과 온대 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해 있다.





발리의 남동지역

아메드(Amed)

아메드 A. B. C.

아메드(Amed)는 마을 이름인데 아메드 다이빙 사이트는 포구의 이름인 세메룩(Cemeluk)을 따라 세메룩 다이빙 사이트라고도 한다.

이곳에서는 조류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조류 다이빙을 하려면 주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주쿵은 필리핀의 방카보트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배인데 여기서는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 작은 보트들이 다이빙 보트들이자 주민들의 고기잡이 배이다. 주쿵은 한 척당 2명의 다이버를 태우는데 겉보기에는 배가 작고 좁아서 장비를 착용하고 입·출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쉽고 편하다.

이곳의 해변은 자갈밭의 폭이 별로 넓지 않아서 다이버가 직접 장비를 지고 걸어가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인데 원주민들이 다 날라다 주므로 다이버는 편하게 다이빙이 가능하다.

아메드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는 우측에 있는 아메드A와 아메드B이다. 아메드 A, B는 연결되어 있는 리프이다. 육지에 가깝게는 5~6m 수심의 평지형 산호 필드이며, 이것이 기울어지다가 40여m 수심 속으로 급경사를 이룬다. 수면은 늘 잔잔한 곳이라고 한다.

길리 셀랑(Gili Selang)

길리 셀랑(Gili Selang)은 파당바이에서 보트로 45분 거리에 있는 섬 발리의 동쪽 대부분의 지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이다. 본토와 길리 셀랑(Gili Selang) 사이의 얕은 곳에 있는 보호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섬의 북쪽에 직접 위치의 가장 보호 섹션이 놓여 있다. 검은 모래 암초 슬로프를 따라 가면서 검은 산호 수풀과 고르곤 팬을 만나서 피그미 해마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해 수로에 근접해 있어 모험을 즐기는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있는 발리 다이빙 사이트이다. 거대한 잭피쉬 무리를 볼 수 있다.

세라야 리프(Seraya Reef)

Tulamben에서 남쪽으로 몇 Km 떨어진 곳에 Seraya Reef가 있다. 많은 사진작가에게 이 다이빙 사이트는 매크로 파라다이스로 알려져 있다. USAT Liberty 다이빙 사이트가 쉽고 놀라운 다이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eraya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Seraya의 다이빙 사이트는 점차적으로 경사진 암석 바닥과 산호와 스폰지가 있는 검은 모래이다. 해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해양생물은 해마, Harlequin Ghost Pipefish, Boxer Crab, Small Murene, Frogfish 및 Harlequin Shrimps, Nudibranchs 등이다.





주쿵



발리의 남동지역

투람벤(Tulamben)



Tulamben은 발리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Tulamben Bay는 발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해양생물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이 베이는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이동하는 주요 해류에서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3개의 주요 다이빙 사이트가 완전히 다른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Tulamben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수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쿠부 코너(Kubu Corner)

이곳은 이미 3~8m의 얕은 지역에서 멋진 산호정원으로 시작된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흥미롭고 경산호초가 있는 아름다운 암초를 탐험할 수 있다. 이곳 주변의 해양생물은 풍부하고 다양하여 바라쿠다, 바다거북, 리프상어 등을 볼 수 있다. Kubu willage는 Kubu Ship Wreck이라고 부른다. 배는 날씨순찰선을 가라앉혀 만들었다. 난파선의 무게는 150톤이고 길이는 55m이며 깊이는 약 13~30m이다.









투람벤의 난파선 리버티렉(Liberty Wreck)

투람벤(Tulamben)은 아메드에서 10km 북쪽의 해변에 있다. 해변은 일직선형이다가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400m 거리에 바다 쪽으로 돌출된 육지가 보인다. 그 돌출부가 비치 다이빙에 애용되는 쿠부코너(Kubu Comer)이다.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200여m 떨어진 곳에 리버티 난파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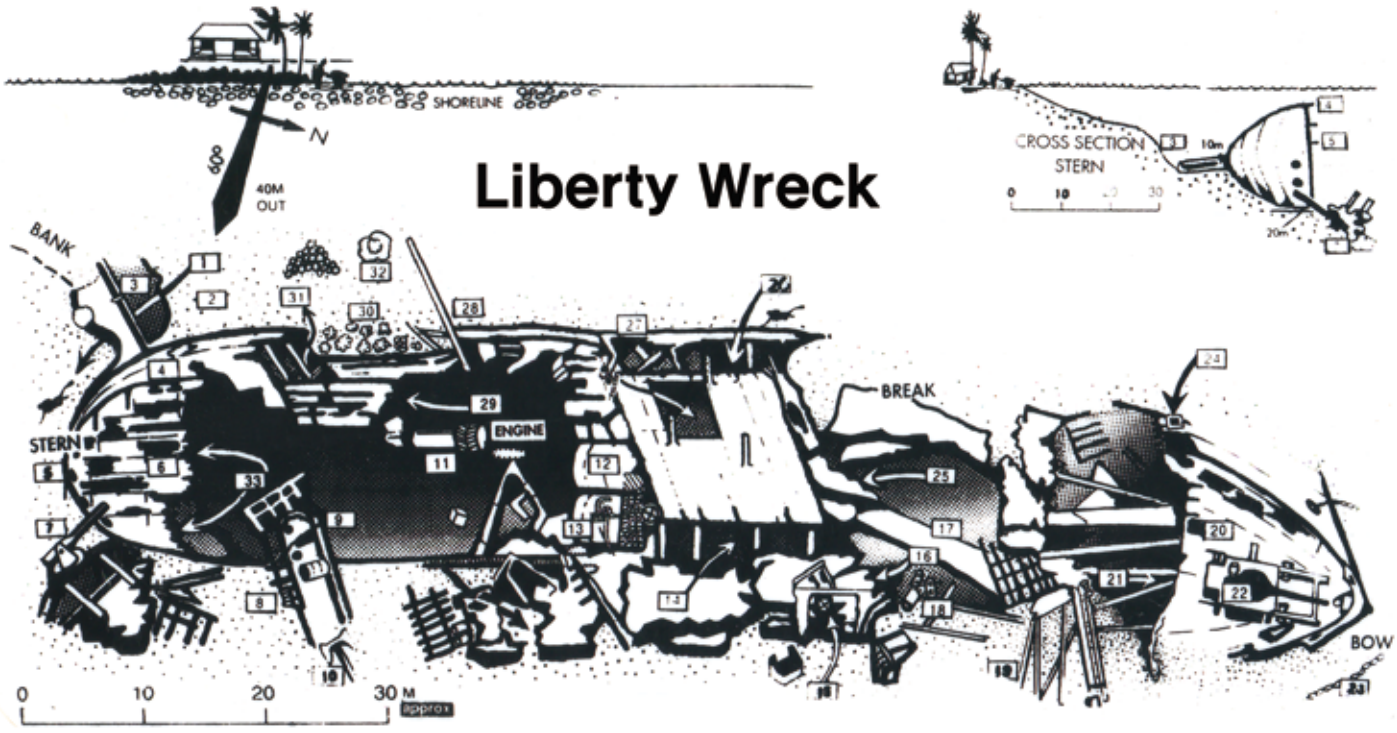
리버티호에 입수하려면 주차장에서 300여m의 자갈밭을 걸어가야 하는데 장비의 이동은 동네 원주민들이 머리에 이어다 주므로 힘들 것이 별로 없다.

바닥은 검은 화산모래이며 수심이 3~4m에서 깊은 수심으로 급강하 한다. 그 모래 경사면에 기대어 있듯 쓰러져 있으므로 일단 난파선 다이빙의 시작이 매우 수월하다. 이 얕은 수심에서 난파선의 벌어진 틈을 뚫고 들어가면 복잡한 구조물은 29m 수심까지 펼쳐져 있다. 이 난파선의 길이가 120m 정도이므로 한두 번의 다이빙으로 전부 보기 어렵다. 배의 선수와 선미 쪽은 비교적 원래 모습이 살아있고 중간 부분은 많이 부셔져 있다. 평소 조류가 약한 곳이다. 만약 조류가 강하거나 급히 출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도 해변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또한 난파선의 얕은 쪽과 되돌아가는 모래밭에도 구경거리가 많으므로 안전 정지를 하면서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다.

난파선에는 연산호 경산호 등을 비롯하여 부착생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물고기의 종류와 수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개복치(Mola-Mola 또는 Sunfish)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운이 좋으면 볼 수 있다.











리버티호(USS Liberty Ship)의 역사

리버티호는 1918년에 건조된 미 육군의 무장 화물선이었다. 길이 120m, 폭 17m, 6,200t급이다. 1942년 1월 11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필리핀으로 화물을 싣고 가던 중 룸복섬 남서쪽 10마일 해협에서 일본의 잠수함 공격을 받았다. 리버티호는 즉시 침몰할 정도는 아니어서 미 군함에 의해 발리로 예인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침수가 심해 목적지까지 예인이 불가능해지자 투람벤 해변에 좌초시켜 놓았다. 나중에 인양하자는 계획이었다. 리버티호는 1963년 아궁산이 폭발할 때까지 이곳 해변에 놓여 있으면서 수면 밖으로 보이던 배였다. 그러나 아궁산 폭발의 여파로 땅이 흔들려 물속에 드러눕게 되었다. 해변에 나란히 누워 있으며 뱃머리가 북쪽으로 놓여 있다.



USS Liberty Ship

발리의 북서지역

멘장안섬(Menjangan Is.)

멘장안섬은 발리섬의 북서쪽에 가깝게 붙어 있는 작은 섬이다. 멘장안섬으로 떠나는 선착장은 라부안 라랑(Labuan Lalang)이라는 곳에 있다. 본섬에서의 거리는 8km이며 보트로 30분 걸린다. 발리섬의 북서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멘장안섬도 국립공원에 포함된다. 그래서인지 여기에는 공원당국이 만들어 놓은 감시초소(ranger post)가 두 개 있다. 감시초소는 감시인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객의 쉼터가 된다.

멘장안섬은 작은 섬으로 슬로프와 월다이빙을 하는 곳이다. 멘장안섬은 지리적으로 본섬의 지형에 호위되어 있는 형태라 조류가 강하지 않고 바람이 조용해 수면도 늘 잔잔하다.

Menjangan Island는 발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이다. 약 5m 평지에서 입수하여 약 200m 연장되어 다양한 각도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경우 섬의 북동쪽은 약 40m로 완만하게 내려가고, 남서쪽은 훨씬 더 극적인 벽이 50m 이상으로 떨어진다.

일-가든(Eel Garden)

이것은 Menjangan 섬의 가장 서쪽 지점에 있다.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쪽 벽에서 시작하여 서쪽 해안을 따라 표류하여 발리 본토와 Menjangan 섬 사이의 통로로 이어진다. 이 다이빙 사이트에는 약간의 현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섬 주변의 다른 아름다운 사이트에서 약간의 경험을 가진 다이버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류로 인해 이 사이트는 물고기와 산호의 환상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Garden eels, Turtle, Pipefish, Reef sharks, Schools of Mackerel, Wahoo, Giant trevallies, Even the snubnose pompano 등이다.

앵커 난파선/카팔 부당

Menjangan Island의 또 다른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는 Kapal Budak이다. 이것은 Bahasa의 Anchor Wreck를 의미한다. 그것은 대략 6m에 놓이는 큰 닻에서 그것의 이름을 얻었다. 약 33미터에 150년 전에 지어진 대형 목조화물 보트가 있다. 아무도 이 난파선의 이름이 나이 거대한 벽의 바닥에 왜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일부 유물은 여전히 수중에 있지만 다이버들에 의해 많은 유물이 유실되었다. 이 다이빙 사이트는 실제로 난파선 자체에 대한 명성이 없지만 인상적인 벽의 다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 이 다이빙 사이트에서 그린터틀(Green turtles)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Box fishes, Moray eels, Flat worm, Nudibranchs, Bump head parrotfish 등이다. 그리고 False moorish idols의 큰 무리도 압권이다.

코랄 가든(Coral Garden)

경산호 및 연산호의 다양한 종류와 멋진 수중 정원이 장관이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Crocodile fish, Spade fishes, Trumpet fishes, Cleaning fish, Eagle rays, Reef sharks, Scorpion fish, Nudibranchs 등이다.

샌디 슬로프(Sandy Slope)

샌디 슬로프는 보트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평균 4m 깊이에는 거대한 모래 놀이터가 있다. 수많은 플란더와 장어 정원을 만나기에 이상적이다. 모래 지역에서 미터 떨어져, 경사는 약 30m에 강하한다. 우리는 얕은 지역을 탐구한 후에 아름다운 산호를 탐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Flounders, Razor fish, Schools of catfish, Garden eel, Clown fishes, Barracudas 등이다.

템플 포인트(Temple Point)/박쥐 동굴(Bat Cave)

수중세계를 무시한 이 2가지 다이빙 사이트는 멘장안섬 전체에서 최고의 경치를 자랑합니다. 템플 포인트(Temple Point)는 절벽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Ganesh 동상의 발에서 시작되며, 박쥐 동굴(Bat Cave)은 수백 개의 박쥐가 가득한 얕은 동굴 입구 근처에 있다. 이 사이트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 두 다이빙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한 번의 다이빙 동안 아름답고 부드러운 드리프트 다이빙 동안 덮일 수 있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Leaf scorpion fish, Frog fish, Reef sharks, Big gorgonian 등이다.

POS Dua(II)

포스 II는 멘장안섬에서 가장 인기있는 다이빙 사이트로 발리 본토와 가장 가깝다. 가장 극적인 벽과 부채산호들의 피그미해마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Eagle rays, Nudibranchs, Ghost pipe fish, Reef sharks, Pygmy seahorse 등이다.



발리의 북서지역

본섬 지역





Pemuteran Bay

The Menjangan Resort에서 약 30분 거리에 Pemuteran Bay가 있다. 이 지역은 맹그로브(mangroves)와 경사(Slopey), 모래 바닥으로 가득하다. 이 지역을 탐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이트가 많이 있다. 매크로 생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다이빙브사이트는 일반적으로 6~25m에 이르며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Nudibranch, Mimic Octopus, Electric Clams, Pipe Fish, Sea Horse, Shrimp, Batfish 등이다.

PUTRI JATI (PJ)

어두운 화산 모래에 Mimic Octopus, Ornate Ghost Pipe Fish 및 Sea Horses를 포함한 다양한 놀라운 매크로 생물이 가득하다. 이곳에 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Frog fish, Pipe fish, Shrimp, Mimic octopus, Coconut Octopus, Cuttlefish, Box Crabs 등이다.

SECRET BAY

길리마누 베이(Gilimanuk bay)에 위치한 이 사이트는 5m에서 시작하며 보통 10m보다 깊지 않아 매크로 생물을 촬영하는 동안 긴 다이빙을 완료하고자 하는 수중 사진가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불행히도 이 사이트에는 꽤 많은 쓰레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통 게, 개구리 피쉬, 거너드 및 누디브랜치의 집이 된다. 이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생물들은 Frog fish, Pipe fish, Leaf scorpion fish, Mimic Octopus, Nudibranch 등이다.



4 발리섬의 육상 관광

발리섬 남부 해변지역

세미냑(Seminyak), 레기안(Legian), 짐바란(Jimbaran)에서 탄중 베노아(Tanjung Benoa)에 이르는 해안에 넓은 관광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짐바란(Jimbaran) 비치에서 씨푸드 음식을 즐기는 것도 이색적이다. 특히 세미냑의 북쪽에는 발리섬의 관광 아이콘인 암석위에 세워진 성지 타나롯(Tanah Lot)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타나롯(Tanah Lot) 사원



짐바란 비치의 씨푸드 식당

우붓(Ubud) 산악지역

우붓 지역은 발리의 주도 덴파사르(Denpasar)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리 예술의 중심지다. 우붓 지역에는 가장 발리다운 다채로운 볼거리와 멋진 상점,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우붓왕조의 기반이 남아 있는 사렌아궁 궁전(Puri Saren Agung, 우붓 왕궁), 약 200마리의 원숭이가 서식하고 있는 멍키 포레스트, 발리 무용과 악기를 배우거나 발리 의상, 메이크업 등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 발리 회화에서부터 해외 아티스트의 수준 높은 예술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여러 미술관 등이 있다.

뜨갈랄랑(Tegalalang)은 우붓에서 뜨갈랄랑 로드(Jl. Tegalalang)를 타고 북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계단식 논과 수공예품 거리로 유명하다.



우붓왕궁



뜨갈랄랑(Tegalalang)의 계단식 논



뿌뿌탄 광장에 있는 전쟁기념관

발리 주도 덴파사르(Denpasar)

주도인 덴파사르(Denpasar)는 현지 사회의 상업 중심지며, 현지 주민이 다니는 쇼핑몰(발리쇼핑센터, 마타하리 등), 시장(수공예품, 직물시장, 파사르 쿤바사리와 중앙식품시장의 파사르 바둔 등), 레스토랑, 공원이 많이 있다. 그 외에 발리 국립박물관과 뿌뿌탄(Puputan) 광장 등의 관광지가 있다. 뿌뿌딴 광장(Puputan Square)은 네덜란드의 침공에 항거해 집단자살을 한 왕족과 백성들을 기리는 기념탑이 있는 공원이다.

발리섬 동부지역

발리 동부에 있는 아궁 산(Gunung Agung)은 해발 3,142m의 발리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인도네시아에서 5번째로 높은 활화산이다. 히말라야 산맥을 '신들의 정원'이라 부른다면 발리 아궁산은 발리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 부르며 신성시하고 있다. 마더 템플(Mother Temple), 브사끼(Besakih) 사원이 있다.



아궁산

발리섬 북서부 지역

발리 북부의 서부발리국립공원(West Bali National Park), 멘장안섬(Menjangan Island), 싱아라자(Singaraja)의 로비나(Lovina)비치 등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섬 주변 도시들에 있는 인기있는 숙소로는 더멘장안(The Menjangan), 밈피(Mimpi Resort), 와케쇼레와(Waka Shorewa)가 있다.

더멘장안은 유일하게 전용 해변을 가지고 있고, 밈피는 고급 리조트이다. 와카쇼레와는 유일하게 국립공원안에 위치해 있는 리조트로 멘장안섬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맨장안섬



로비나 비치